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9월 9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행20장 28-35절

설교제목 : “사나운 이리가”

교회는 무한한 영광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면 두 가지 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위협**입니다. 바울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교인들을 미혹할 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29절) 또 다른 위험은 내부적인 위협인데, 에베소 교회 내에서도 교인들을 미혹하여 자기 유익을 꾀하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30절)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감독자들을 세웠다고 합니다.(28절) ‘감독자’로 번역된 ‘에피스코푸스’는 ‘관리자’, ‘보호자’란 뜻으로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는 임무를 가진 자로써 오늘날 목회자에 해당하는 직분입니다. 더불어 ‘보살피다’로 번역된 ‘포이마이네인’은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단어로써 ‘양육시키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목회자는 교인들을 양육시키기 위해 세워진 직분입니다.(참고 **엡4:11-12**) 그런데 28절을 원문으로 보면 ‘너희는 삼가라’가 문장의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삼가라’로 번역된 ‘프로세케테’는 ‘주의하다’, ‘경계하다’는 의미인데 계속과 반복의 의미를 지니는 현재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교회의 리더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경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공동체는 우선적으로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리더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성경의 역사 안에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해도 변해서는 안되는 분명한 교회의 본질을 고수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새롭게 디자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변화시켜야 할 것과 변화시키지 말아야 할 것은 명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통찰입니다. 통찰력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자기 틀을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은 삼가라’는 의미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리더들은 분명하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곳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살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29절) 최근에 은혜로 교회 **신옥주**라는 이단이 한국교회는 물론 사회에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신옥주는 2014년부터 남태평양 피지 섬에 이른바 **그레이스로드팜**을 설립하고 신도 400여 명을 이주시켜 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이유는 종말론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종말은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계시록을 해석해 줄 특별한 사명자를 만나야 종말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학업, 직업, 사업 등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르바 던**은 그의 저서 ‘**약할 때 기뻐하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는 오직 한 가지, 모두 무릎을 꿇게 만들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영광스런 모습뿐이다. 그 때가 올 때까지 종말을 추측

하는 사람들을 좇지 말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신다(눅 17:23, 21:8).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나라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며, 이 땅의 현실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합니다. 신천지 외에 모든 이단의 특징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을 현혹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마24:4-5)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교주가 있는 집단은 모두 이단입니다. 김영한 교수가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10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리적 기준이 있는데, 정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삼위일체를 시인하고, 성경의 무오성을 시인하고, 공교회를 시인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윤리적 기준으로 정통은 성결, 인격적 신뢰, 인격적 삶, 희생과 헌신, 사회적 선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역시 이러한 이단과 거짓선지자들로부터 교인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31-3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3년 동안 쉬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것은 바울은 교회의 리더들이 분명하게 먼저 말씀에 의하여 세움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권면은 복음과 말씀위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왜곡된 복음과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교회를 흔들려는 모든 사탄의 흥계를 물리치고, 끝까지 진리와 신앙을 지켜 마지막 그리스도의 보좌에 이를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굳건히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바울이 경고한 에베소 교회가 경험하게 될 두 가지 위험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성령께서 교회의 리더(목회자,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더불어 이단들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